

경찰청, 첨단 과학 수사기법 도입에 박차

- 「捜査權 調整」後를 대비한다 -

최근 이택순 경찰청장이 『수사구조 개혁은 참여정부 임기 내에 매듭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찰청이 세계적인 첨단 과학수사 기법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한국형 CSI, 다기능 현장증거 분석실 구축

경찰청은 효율적이고 신속한 현장수사지원을 위한 다기능 현장증거 분석실(CSI : Crime Scene Investigation)을 확대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경찰청은 지난 2월 서울경찰청에 우선 구축되어 운영중인 「다기능 현장증거분석실」을 미세증거물을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실험체 현미경과 고압 멸균기 등 22가지 최첨단 장비를 도입하여 증거물에 대한 기초분석을 통해 용의자의 신원을 신속하게 파악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토록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다기능 현장증거분석실」의 전국 지방청 확대구축(▶금년 상반기: 부산, 인천, 강원, 전북, 경북, 경남청, ▶내년: 여타 지방청)을 통한 현장증거물의 신속한 감정으로 강력범죄를 조기에 해결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전자감식정보 DB」 구축

경찰청은 살인·강도·강간 등 재범률이 높은 강력범죄의 조기 해결과 재범방지를 위해 「유전자감식정보 DB」구축과 관련, 그동안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유전자 정보은행」설치를 위한 법률제정을 추진하여 지난해 7월 국무회의 의결 후 현재 국회 입법화를 추진중에 있다(‘07.2 현재 법사위 계류중)

이와관련 근거법령이 제정되는 대로 국과수 내에 DB를 구축하여 강력범죄 수사시 활용할 계획이다.(살인, 강도, 강간 등 11개 강력범을 대상으로 피의자의 영장 또는 서면 동의를 원칙으로 채취)

○ 얼굴인식·Real-Time 차량추적수사 현실화

과학기술 발달과 더불어 최근의 범죄는 나날이 자능화·기동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한 새로운 수사기법이 요구된다.

경찰청은 금년에 IT·BT를 기반으로 한 「얼굴인식시스템」, 「Real-Time 차량추적시스템」등 첨단 과학수사시스템을 개발하여 수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얼굴 인식 시스템: CCTV 등 영상자료상의 피의자 얼굴을 DB와 대조하여 피의자의 신원을 신속하게 특정하는 시스템. Real-Time 차량추적시스템 :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영상

단속카메라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용의자량을 추적하는 시스템)

경찰청은 영상자료를 활용한 첨단 과학수사 시스템을 개발, 수사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영화에서나 가능하였던 과학수사기법을 현실에 적용하여 조기에 범인을 검거하고 민생치안을 확보토록 할 방침이다

○ 강력범죄 수사역량 강화

경찰청은 강력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강력범죄 수사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강력사건의 형사기록·분석자료 등을 DB화하여 실시간 검색·활용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로서 다른 수사지원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와관련 강력범죄 수사지원시스템(포털·내부망) 개설 차원에서 강력사건 수

행하게 된다. (범죄수익 몰수 대상 범죄: ▶공무원 범죄,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 범죄, ▶성매매, 조직폭력, 뇌물, 국외재산은닉·도피 등 중대경제 범죄 ▶위 범죄에서 유래한 재산 및 자금세탁 범죄)

향후, 경찰청은 일반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금융거래가 수반되는 지능범죄수사 전문인력 양성과 수사기법 연구·개발 등을 통해 범죄 대응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 마약수사에도 프로파일링 기법 도입

경찰청은 마약 고유의 화학물질 성분비율과 합성비율을 분석, 제조자와 경유지를 추적할 수 있는 「마약 프로파일링(profiling) 시스템」을 개발·활용할 계획이다.

〈마약 프로파일링 : 마약제조시 촉매, 제조 방법 등에 따라 발생하는 특유의 불순물 성분 비율을 분석하여 제조지 및 경유지를 역추적하는 방법(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참조기법 개발)〉

분석대상 마약류로는 ▲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 다이어트·건강식품을 사칭한 마약성분 함유 신종 마약 ▲ MDMA·엑스터시 등 신종마약류가 모두 포함되며, 시스템이 구축되면 호주 연방경찰·美 DEA 등 마약관련 외국 수사기관과 마약류 프로파일링 자료 및 최신 정보를 공유하여 마약류범죄를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 모든 수사관 직무성과평가 실시

경찰청은 전국적으로 2만여명에 달하는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금년부터 객관평가와 주관평가를 병행한 「수사관 직무성과 평가시스템(IPAS)」을 구축하여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수사관 직무성과 평가시스템(IPAS: Investigation Performance Appraisal System)은 강력·폭력·지능·경제·마약·사이버·여성청소년·교통사고·외사 등을 대상으로 수사결과+수사과정+가점·감점 등 220여개 객관적인 평가항목으로 팀장 및 과장이 수사종결단계에서 각 사건에 대하여 실시하는 주관평가를 합산하여 매월 전국 수사관(팀)의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번 IPAS는 「올바른 수사」를 뒷받침하기 위한 평가제도로서 범죄정보 관리시스템상 업무처리과정에서 대부분 자동으로 평가되며 수사결과뿐만 아니라 수사 전과정에 충실해야만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구성되어 있다.

한편 경찰청은 평가결과를 마일리지 형식으로 특진·표창 등 사기진작책에 근거자료뿐만 아니라 보직인사·근무평정 및 다양한 분야의 정책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과학 수사요원들이 시료를 분석하고 있다.

자료(발생·검거) 공유시스템을 통한 자료 공유, 전문가그룹에 의한 범죄유형별 분석을 통한 사례분석, 디지털 형사자료실을 활용한 사건기록에 주력하는 한편 시스템 통합관리체계 및 수사지원 Network 구축차원에서 공중전화 위치확인·이동통신사 공공사업분야협력 등을 활용한 수사지원시스템은 물론 섬유·성문·영상분야 등 민간연구기관과 협의를 수사지원 Network도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청은 앞으로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강력범죄 수사역량이 한층 강화되어 강력사건을 조기에 해결함으로써 국민불만을 불식시키는 한편 체감치안 확보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경제범죄특별수사팀」신설

경찰청은 조직폭력·마약·뇌물 등 날로 증가하는 국제·첨단·지능범죄의 자금추적을 전담으로 하는 「경제범죄특별수사팀」을 경찰청과 7개 지방청에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전담팀에서는 금융계좌 추적을 통한 경제범죄 관련 자금흐름 분석·지원, 조직폭력·성매매·뇌물수수 관련 범죄수사 자금추적 및 범죄수익원 발원업무 등을 수

「한국경찰이론과 실무학회」창립 총회

- 신임 회장에 金忠男 관동대 교수 -



경찰실무에 적합한

교육풍토 조성 앞장서기로

경찰 출신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경찰이론과 실무학회」는 지난 2월 24일 오후 2시 재향경우회 중앙회 회의실에서 회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갖고 김충남 교수(64세, 관동대학교 법정대학장)를 초대 회장으로 선출하고 한국경찰실무에 적합한 연구 및 교육풍토 조성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서 조철욱 탐라대 교수는 발기문을 통해 『학술계 및 경찰실무계의 발전적 변화를 토대로 하여 한국경찰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의 도입과 개발에 의해 경찰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한국 경찰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위한 학문 공동체의 결

성 및 조직적인 활동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보다 전문적인 학문 공동체를 결성하여 학문적, 실무적으로 공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창립 준비위원장인 관동대 김충남 교수는 경과보고를 통해 「대학교단에서의 경찰학 정체성의 불확립, 교육방법에 대한 합의점 도출에 대한 어려움 등의 환경 속에서 경찰 출신 교수들의 증가와 더불어 학회를 만들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던 중 지난 1월 24일 몇몇 발기인들이 모여 세부사항을 논의하는 한편 회칙을 검토하고, 발기인 27명의 뜻을 모아 오늘 창립총회를 갖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총회는 만장일치로 김충남 창립준비위원장을 초대 회장으로, 유영주 동원대 교수와 유영현 대불대 교수 등 2명을 감사로 각각 정책개발을 위한 학문 공동체의 결

이 자리에서 김충남 신임 회장은 『우리 학회가 명실공히 모범적인 학술단체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면서 『분야별로 사례중심 연구를 통해 이론과 실무가 접목이 되도록 학과 아울러 연중 1~2회의 학술 세미나 및 학술 논문집의 발행, 학회 임원진의 1개월 이내 구성, 학회 운영자금 조달 방안 강구, 비경찰 교수들에 대한 회원 영입 등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학에 경찰행정학과가 설치된 곳은 지난 62년 서울 동국대학교를 기점으로 92년 관동대학교, 94년 원광대학교 및 계명대학교를 비롯, 전국 1백 여개에 달하며, 50여명의 경찰출신 교수들이 현직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강의하고 있다.

한편 「한국경찰이론과 실무학회」는 「이번 창립을 계기로 저명한 일반 교수들과 연구진들도 대거 영입해 활발한 공동연구에 주력할 방침」이라면서 학회 활동에 관심 있는 교수님들의 적극 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연락처: 김충남 회장, ☎ 033-649-7290~9, 011-302-2585)

신임 김충남 회장 약력

▶경찰간부후보생 21기 ▶강원 고성서장 ▶경기 분당서장 ▶관동대 경찰학과 교수 ▶한국공안행정학회회장 ▶관동대 법정대학장
(주요 저서 : 경찰학 개론, 경찰 수사론, 객관식 경찰학 개론)

법률상식

소유권 이전 등기

—— 김 진 (경우회 제정처장)

- 자기의무 이행은 아니한 채 상대방에게 의무이행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의무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등 특정한 계약 없이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소유권 이전등기이행을 요구할 수 없다.

대법원판례 2006. 2. 24 선고 2005다 58656판결

【판결요지】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牽連)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 이

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바,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서 볼 때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雙務契約)에 있어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는 채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 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2]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매매대금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전부와 부동산의 소유권이 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미국보청기



최고급 디지털보청기를
40% 할인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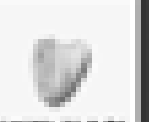
전·현직 경찰관님께

15년 전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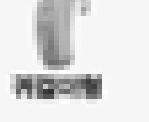
미국보청기



디지털 고가형



디지털 중가형



디지털 저가형



디지털 초저가형

부서 미국(전)대통령
보좌 미국(전)대통령
레이건 미국(전)대통령

이 사용하는 보청기

- ▶ 장음이 정확하고 깨끗하게 잘 들립니다.
- ▶ 15년 전통의 보청기 전문회사입니다.
- ▶ 아주 작은 소리도 아주 잘 들립니다.
- ▶ A/S를 완벽하게 해드립니다.
- ▶ 10년 보증서 드림

서울 : 서울시 용구 남대문로3가 25번지 (구,서울시경 맞은편)
전화 : (02)752-2580, 752-2589 핸드폰 : 011-229-0055

인천 :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222-1 푸른 B/D 2F
전화 : (032)469-0033 핸드폰 : 011-229-0055